

# 인삼 다당체 물질 미국특허 획득!

원자력의학원 윤연숙 박사, 골수 보호와 조혈촉진 및 방사선 방어효과

국내 학자가 면역증강 물질인 인삼 다당체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의 윤연숙 박사는 에탄올 침전법을 이용해 인삼 추출물로부터 다당체 복합물을 얻은 뒤 분리·정제해 얻은 순수 다당체에 대해 최근 미국 특허를 얻었다.

인삼 다당체는 대식세포를 자극해 임파구 세포로부터 인터페론을 생성시킴으로써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의 암세포 살해 능력을 증가시키고, 암세포에 대한 세포성 면역반응 또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윤연숙 박사가 동물 대상으로 항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생쥐에 인삼 다당체를 투여했을 때 암세포 전이가 54% 억제됐고, 이식된 암세포의 성장을 69%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사량에 이르는 방사선을 쬐인 생쥐는 11일만에 사망했지만 인삼 다당체가 투여된 생쥐는 30일 동안 100%의 생존율을 보여 인삼 다당체가 골수 방어와 조혈 촉진, 방사선 방어작용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연숙 박사는 미국 특허로 인삼 다당체의 생체 내 면역 및 골수 방어기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6/17>